

신재생에너지 생산지로 거듭난 광역매립장

광주환경공단 위생매립장 태양광 발전에 메탄가스 생산 온실가스 감축·수익창출 기여 침출수 안정적 처리도 돋보여



광주시 남구 광역위생매립장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매립장 전경. <광주환경공단 제공>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에서 관리·운영하는 남구 광역위생매립장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지로 거듭나고 있다.

전국 최초 주민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 북구의 운영동 위생매립장 폐쇄에 따라 지난 2004년 5월에 준공, 2005년 1월부터 광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최첨단 방식으로 설계된 매립장은 축구장 40개 크기에 버금가는 총 64만4000㎡의 면적으로 조성됐다. 지난 9월말 현재 총 948만㎡의 매립용량 중 257만4000㎡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잔여용량은 앞으로 50여 년은 거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준호기성 셀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준호기성 매립방식이란 오수(汚水)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를 집수하는 단계에서 침출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집수장치를 설계한 구조를 말한다.

매립장은 이와 같이 쓰레기를 매립한 후 양질의 토사를 그 위에 덮는 방법으로 매

일 광주 전역에서 들어오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신규로 가동된 SRF(Solid Refuse Fuel·고형의 재생연료)시설과 연계해 광주시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하루 평균 854t의 폐기물이 매립장과 SRF시설에 반입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71t이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립장에서는 SRF 시설 가동에 맞춰 잔재물의 매립, 환경 영향조사 통합 관리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안정적인

매립 복도를 위해 SRF 시설 운영사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 후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시설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침출수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유기물(메탄올) 호기조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집진조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최적의 설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SRF시설 운영에 맞춰 침출수 연계처리의 협의 기준을 전보다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또 매립이 완료된 부지에는 침출수 발생

을 줄이기 위해 부지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경관미화를 위해 조경 관리를 하고 있다.

매립부지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매립장은 2016년에는 30만7215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약 2300만원의 수익을 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8만5591kWh의 전력을 생산했는데 이는 설정목표 대비 11%나 높은 수치이다.

매립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외에도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2016년까지 총 2629만8000㎡의 가스를 생산해 이를 바탕으로 3만3341MWh의 전력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총 3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만6171t의 온실가스를 저감해 27억원의 수익을 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용훈 이사장은 "광역위생매립장은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에서 벗어나 태양광, 메탄가스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활용해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에서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민이 행복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전사각지대 없도록...윤 시장 대책 지시

쓰레기 반입시간 연장·고교 현장실습 의견 청취

최근 환경미화원, 어린이, 현장실습 고교생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윤정현 광주 시장이 5일 관련 업체와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윤 시장은 이날 새벽 5시30분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인 D사를 찾아 업무를 시작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시 관련부서에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 마련을 거듭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5개 자치구 청소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해 환경미화원들에 발광기능 등 안전성을 높인 안전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반입시간을 연장해 수거시간에 쫓겨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 청소차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카메라(블랙박스) 추가 설치 검토와 매일 작업 투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이 자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임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도 매일 간부급이 참여하여 안

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이어 북구한울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을 찾아 녹색어머니회원과 아이들 교통지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한울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통학로를 걸으며 보도 미설치, 불법 주차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보수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후 학교장, 녹색어머니회원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인 A업체 실습현장을 찾아 실습생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앞서 윤 시장은 최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모든 사업장이 안전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 근무실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달 28일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20일까지 벼 보급중 신청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접수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 봄에 파종할 2017년산 벼 보급종을 20일까지 주소지 내 농업인상담소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정부 보급종은 엄격한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검사규격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 자가채종 종자보다 증수 효과가 6~65% 높다.

관내 공급량은 116t이며, 신청 대상 품종은 2018년도 공공비축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새일미, 신동진 외에 미품, 동진찰, 영호진미, 새누리, 영광이다. 공급가격은 수매가격이 결정되는 내년 1월중 공고되며, 보급종은 내년부터 3월30일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농업인상담소가 없는 일부 지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주민센터는 도산동, 비아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하남동 등 11곳이다.

문의는 가까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062-613-5293)으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예비 운전자들 안전교육. 광주교통문화연수원(원장 홍남진)은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서강고 3학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제공>

북구 '주부순찰단' 등 생활민원처리 성과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365 생활민원센터 운영 평가'에서 북구가 8년 연속 생활민원 처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65 생활민원센터 운영 평가'는 ▲계획

수립 운영 ▲민원처리추진실태 ▲광주시 365생활민원 처리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민원처리의 능동성 및 적극성, 수범사례 등 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북구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의 생활불편 신고를 통해 올 한해 생활민원 2800여건을 신속

히 해결했다. '우리동네 클린 서포터즈',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등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책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간부 공무원들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변호사' 사업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근육장애인 종합지원 계획' 시행

내년 1억2400만원 배정

실태조사·방문 관리 등

광주시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근육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육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육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근육장애인은 신경·근육계통 질병으로 근육이 약화돼 점진적으로 걷거나 활동이 어려워져 일상생활을 짐상에 누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최종증 장애인이다.

광주지역 근육장애인은 2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장애 분류 1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 파악은 힘든 상황이다.

이번 '근육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은 올해 9월 광주근육장애인정책연대에서 제안한 정책제안서를 기본으로 근육장애인협회 직접 방문, 의견청취와 사전조율 등을 통해 기본안을 마련하고 '근육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지난 11월 최종 확정했다.

시는 6개 사업에 1억2400만원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은 ▲근육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거주지 개별 방문 안전케어코드 네이터 운영 ▲근육장애인 당사자 심리상담지원 및 자문솔루션회의 운영 ▲근육장애인 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공유 ▲특성 기업 응급상황 안전케어카드 보급 ▲근육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운영 등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려 받아야 할 근육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육장애인과 가족들의 힘든 여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꿈을 펼치며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은 "광주시 근육장애인 지원 계획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준 윤정현 시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시는 이 외에도 소수약자를 보호하고 한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탈 시설 5개년 자립 지원계획'과 광역시 최초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